

담양군, 서울사무소 운영... 국비 확보 등 효과 특출

대구 출신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 서울사무소장 임명 여·야 넘나들며 국비 확보·지역화합 이끌어내

담양군은 지난 9월 국회, 정부 부처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하고 현안사업과 국비재원 확보 등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무소는 민선 8기 역점 추진 시책으로, 지역에 당면한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접근해

야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이병노 군수만의 철학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서울사무소장에는 대구출신 국민의힘 정책비서관 출신을 채용하며 여당과의 접점을 높였다. 이번에 채용된 김동률 서울사무소장은 대구 태생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정책비서관과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서 활동했다. 김동률 소장은 이러한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야를 넘나드는 가교 역할을 하며 담양군의 정부예산 확보와 신속한 정책동향을 파악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이병노 군수의 국회 방문 시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국비 확보와 지역화합을 이끌어냈다. 이 군수는 여야 의원들을 만나며 ▲고서~창

평 국지도 60호선 확장 ▲무정 국지도 60호선 위험도로 개선 ▲고서, 대덕, 창평(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전면 도시재생사업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제4차 범정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574억 원의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이병노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사무소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옥과면 신흥마을 만들기사업 준공식 개최

곡성군이 옥과면 신흥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하고 24일 신흥마을회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이상철 군수를 비롯해 옥과면 김재만 면장, 정문수 안전건설과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옥과면 신흥마을 만들기사업은 2018년 마을만들기 현장 포럼을 시작으로 2019년 전라남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2020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을 통해 신흥마을에는 총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돼 기초 생활 기반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됐다. 먼저 마을 공동체와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할 '흥부자 마을회관'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흥부자 문화 고실 운영', '마을 가꾸기' 등도 추진했다. 곡성=양해영기자

장성군, 전라남도 음식문화 메카로 거듭나...토론 개최

장성군이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23일 장성을 소재 아인미술관에서 '남도음식의 품격, 문화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가졌다. 원형 탁자에서 회의하듯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회의는 전문가 발제에 이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관 스님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지역민, 언론인, 군의회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찰음식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정관스님은 "해외에서는 한국의 발효음식, 특히 비건(식물성 음식만을 섭취하는 완전한 채식주의) 김치와 사찰음식에 관심이 높다"면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는 장성군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현진 남도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전통음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발전에 힘쓰는 한편, 전통음식과 문화를 함께 상품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된 바 있는 '형산녹수' 김진만 대표는 전통주 축제를 제언해 주목받았다. 김 대표는 "독일 옥토버 페스트, 일본 사케노전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술과 음식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전통주와 지역 먹거리, 전통음식, 사찰음식 등이 결합한 축제를 연다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철 아름 레스토랑 헤드 셰프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는 "고창 복분자 발사믹 소스가 뉴욕에서 큰 인기"라며 "장성의 대표 특산물인 감을 활용한 감 식초를 세계적인 입맛에 맞게 잘 개발한다면 해외시장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성=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및 나눔 실천

매주 토요일 산림인접지역 순회 캠페인·산불진화 경연대회 입상 상금 기탁



구례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계적경정 등을 통해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대는 읍·면에 배치되어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와 산림 내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산림인접지역과 주요 명산을 순회하며 농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구례군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지난 11일 전라남도가 주최한 '전라남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 입상하는 등 산불진화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시상금으로 받은 4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였다. 구례군 관계자는 "요즘 산불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위급할 때 외치세요" 나주시,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나주시가 공중화장실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와 같은 위급 상황에 외치는 음성을 인식해 경찰에 전달하는 비상벨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 12대를 설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금성관', '한수제주차장', '영산도 흥어의 거리', '빛가람 전망대', '빛가람동 관리사무소·파크골프장' 등 남·여 공중화장실 6곳이다. 이번에 설치된 음성인식 비상벨은 기존

누르는 방식의 비상벨에서 편의와 기능이 한층 보완된 비상 장치로 기대를 모은다. 기존 버튼형 비상벨은 설치된 장소까지 이동해야 위급 상황 시 접근성이 떨어졌다. 반면 이번 음성인식 비상벨은 특정 키워드를 인식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와 같은 도움 요청 단어의 초성을 인식해 지정된 긴급번호(112상황실)로 음성통화가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또 경찰등, 경보음이 울림과 동시에 비상벨이 설치된 장소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가장 인접한 파출소로 전송돼 즉각적인 현장



출동이 가능해졌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축산 시책 종합 평가 '최우수상' 수상

화순군이 지난 11일 전라남도 주관 '축산 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화순군은 2018~2020년 3년 연속 최우수상, 2021년 우수상에 이어 5년 연속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남도는 축산 시책의 원활한 추진, 시군 자체 우수시책 발굴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축산정책·동물복지·축산경영·축산자원 4개 분야의 31개 항목을 평가하는 축산 시책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송아지브랜드 등 한우 개량, 가족사육 실태조사, 유기·무항생제 인증 신규 발급, 녹색축산 농장 목표 달성, 조사료 사업비 집행, 축산물 이력제 단속,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 달성, 축산악취 민원 감소 등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축산 시책 종합평가 성과는 지역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자체 예산 지원 등 꾸준한 관심과 투자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